

최근 총선에서 '노인편향'이나 '노인정책'이 아니라 정점이 미묘한 과정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점을 제공한 발안당사자는 20~30대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뜻으로 한 말로 '60~70대는 쉬어도 좋다'는 말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노인세대를 경시하는 언행으로 비추어지는데 대해 크게 당황하고 노인단체를 찾아 사과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60대 뿐만 아니라 50대 정년을 일컬어 '오욕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40대도 '사오정'이 아니냐는 말로 나이에 걸맞는 대접보다는 돈 중심의 가치관속에서 경제적 집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청년세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평생직장이라는 과거의 풍속은 사라지고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취업전선에 준비가 불충분하고 있으니 인간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대가 안다.

농업사회에서 성장한 우리 50대는 대가족적 경로사상을 가정에서 익힐 수 있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할아버지의 권위는 높았고, 아버지의 위상은 지엄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큰 집의 아버지처럼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그것은 총효의 윤리로 의심의 여지없는 도덕박칙이었다.



불자 세상보기

이희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선거용 세대갈등

그러나 6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산업화는 전형적인 농촌사회를 도시사회로 변모시켰고, 가정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되었다. 그런 핵가족 시대에 할아버지들은 과거와 같은 권위를 잃고 소외되어 갔으며, 그들이 대접했던 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경제적 집으로 취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신 과도한 자녀와 여성의 권익이 노인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지엄한 아버지 같았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허튼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당선된 소위 탈권위주의와 일방주의에서 쌍방향의 시대로 어느새 변화

버린 것이다.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同性)끼리 혼인을 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바꾸고, 여러 부부간에 혼음을 즐기기도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전통적 가치관과 함께 병존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일면이 된 요즘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인소외의 문제도 실은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급속한 세대교체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며, 과거보다는 미래에 비중을 두는 그런 가치

관을 드러낸 것이다. 노인보다도 청년을 중시한다는 것은 곧 과거보다는 미래를 소중히 한다는 뜻과 같다. 우리사회가 오직 미래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향하리만 하면서 생긴 슬픈 일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옛그제 70대의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을 잃었다. 생리적 나이는 노인이었지만, 그분은 젊은이보다 더 높은 기상을 패기를 가졌었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며, 약속은 생명처럼 지켰다. 최근 만남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민족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앞 세대의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신뢰사회의 바탕이 되며 후일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어서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의 윤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이건 조화이건 또는 '노인소외' 문제이건 평소의 공공정책에서 쓰는 소홀하다가, 느닷없이 득표를 위한 선거용으로 들추고 나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그리 아름답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한불교 삼보회'가 오는 4월 18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삼보회는 1964년, 당시 불교 발전의 견인자 역할을 하던 청담, 성철 대종사와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재가불자신행단체이다. 삼보회는 일찍이 '삼보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발전의 선진하고 있는, 화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을 배출시켰다.

삼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 숙원사업인 지상 4층 350명 규모의 불교회관을 마련하고 포교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장년층을 겨냥하여 전법교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및 사회복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보회의 역점 사업은 계승포교와 디지털포교이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금년 안에 지역주민을 위해 새로 지은 불교회관 2층에 '가정삼보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시민선

신행의 새 이정표

방을 개방하며, 어린이, 중·고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2500회가 넘는 법회를 통해 설립한 탄허, 청담, 관음 대종사 등 550여명의 고승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40여장의 CD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삼보회의 활기찬 활동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삼보회 뿐만 아니라 불일회, 보림회, 구도회, 달마회 등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들의 공동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문제가 있다면 청년부 법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법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에 삼주법사를 두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법당 공간을 대폭적으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회원들의 법회 참여율을 높이고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행생활의 보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회 활동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TV 중독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라.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마행백문)

집에서 TV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TV를 켜면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TV를 끄자마자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가 금방 긴장 상태로 바뀌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다. 약효가 떨어지면 마치 불안과 고통이 엄습할 것 같아 계속 복용하거나 양을 늘리는 신경안정제처럼 TV 시청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다.

미국의 과학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최근호는 사회문제에 대두된 'TV 중독'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특집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TV를 끄면 불안해질까봐' 더욱 TV를 보게 된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는 생존을 위해 비상시에 써야 할 정향반응(orienting response: 동물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그쪽을 바라보거나 몸을 트는 본능)을 끊임없이 쓰도록 강요한다. TV는 1분에 다섯 번씩이나 정향반응을 가동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시청자의 뇌혈관이 팽창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주요 근육 혈관이 수축되는 생체 반응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TV는 이제 '바보상자'라는 별명을 넘어 생존 본능까지 뺏아가는 '흡혈 상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한다.

TV에 대한 집착은 더욱 보기 좋은 색과 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중독성을 보여준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 나아가 습기가 되어 고정이 힘든 병이 되고야 만다. 달마 대사가 '중생들이 근본 성품을 보지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문방 다하고 정신이 어둡지 않다'고 한 말씀은 역설적으로, 온갖 나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밖으로 향한 마음을 내면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김재정(경제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보다 민심 살피길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찰 방문이 잦다. 각 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했고,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화사 등 큰 사찰들에게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불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방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찰 행사나 신행단체 간담회에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인들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지역의 유력사찰 주지 스님을 찾아다니는 정치인도 적지 않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불심을 잡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느냐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불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민주주의다. 하지만 종교인은 조금 다르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종교마저 정치에 휘말린다면 나라의 크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아직까지 스님이나 사찰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사찰과 스님들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 후에 나타날 지도 모를 민심 분열이나

지역 분할과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김미형(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신도 수행체계 바로 잡아

조계종 포교원이 4월 2~3일 개최한 '신도 수행 현황과 과제' 워크숍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재가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한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화선을 접할 수 없는 재가불자들이 더 많은 현실을 주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가불자들은 간화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교의 기초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가불자들이 다수인 상황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불교의 기본적인 지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포교의 첫 번째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간화선의 대중화도 기본적인 수행관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가불자들이 신도기분수행을 통해 정견과 바른 믿음을 지니는 발심의 단계에 도달한 다음 전문수행으로 이어지도록 수행체계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도원(웃다뉴스)

독자 시

겨울 앞에서

백발노인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옆을 그리도
멤돌고 있으나.

이름도 성도 모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쪼그리진 그 꼴로
언제부터인지
나를 따라 다니나오.

어디선가 본듯 만듯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바늘에 실 따르듯 하나오.

때로는 미울고
때로는 이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쩌다 겨울앞에 앉아 보면
겨울속에 먼저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으나.
당신 미워 고개 돌리면
똑같이 고개 돌리는 당신.
남 자광심(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도원(웃다뉴스)

'연대' 민명

심민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회대외경제사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당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가 내 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벽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나신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 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척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